제329호 天主敎 全州 敎區報 1979. 3. 11 (1)

사순절 제 2 주일

기도서 P. 253 B해
제1독서(창세 22 : 1-29.10-13)
제2독서(로마 8 : 31-34)
복 음(마르코 9 : 1-9)

숲정이

발행인 범 석 규
인쇄인 김 봉 희
주 간 조 성 호
편 집 한 상 갑

편집실 : 전주시서노송동560의6
전주교구청 내 (전화 ③5098)

□ 강 론

빛나는 얼굴을 보려면

박 성 팔 신부

우리는 인생의 축소판 같은 사순절을 지내는 동안 놀랍고도 영광스러운 장면이 오늘 복음에서 펼쳐짐을 알 수 있읍니다. 이는 수난에 대한 첫번째 예고에 이어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죽기전에 하느님 나라를 보리라" 는 예수님의 말씀을 성취시키기 위함도 있지만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 또 제자들에게 자신이 메시아임을 보여 주기 위해 하느님과 만나고, 황홀하리 만큼 행복한 천국의 기쁨을 미리 앞당겨 느끼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깨닫지 못한 베드루는 "여기에 초막 셋을 지읍시다" 하고 솔직한 심정을 토로했지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하느님의 소리와 함께 주위는 오직 예수님과 제자들 밖에 없었읍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활하리라는 예언과 함께 산 위의 신비에만 머무르지 않고 산 아래 세계, 즉 고통과 십자가가 기다리는 인간의 세계에 내려 왔읍니다.

교형 자매 여러분, 오늘 복음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겠읍니까? 그것은 고통과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만이 하느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이 세상을 살면서 "나는 왜 고통을 받아야 하나?"하고 반문할 때가 있읍니다. 마치 모든 고생을 혼자 도맡아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을 보면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더구나 하느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아무도 이 십자가의 길에서 예외일 수 없지 않습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터득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디에서나 발견할 수 있는 이 십자가가 오늘을 사는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읍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물 몇방울로 세례를 받고, 십자성호를 그으며, 십자가에 입맞추고, 십자가에 대한 강론을 들었다 해서 십자가를 이해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야 말로 우리의 실존이 달려 있고, 이 길을 통해서만이 주의 빛나는 얼굴을 뵈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하느님의 소리를 구체적으로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즉 자신을 저주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용서하며, 감옥에 갇힌 자와 굶주린 자를 돕고, 병을 낫게하며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삭막한 세상에 사랑의 표적을 세우고, 손쉽게만 세상을 살아가려는 자신을 정직하게 뒤돌아 보고 자신의 생활을 바꿔야 합니다. 이렇게 될때, 우리는 그날이 오면 오늘 복음에서와 같이 주의 빛나는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복자성당 보좌신부〉

곰 과 뙤놈

—근로자의 달, 요셉 성월에

「오늘날, 한국의 국가 발전에 가장 크게 기여하고 있는 직업인은 〈근로자〉라는 것이 특히 우리나라 일반 중산층들의 지배적인 생각이다. 조선일보 창간 59주년을 계기로, 조선일보 독자 3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국인의 의식구조〉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2천51명의 응답자 중 39.3%가 〈국가 발전을 위해 가장 노력하는 직업인〉으로서 〈근로자〉를 들었다. 다음이 정치가 (17.7%), 교육자 (12.4%), 사업가 (7.5%), 공무원 (6%), 언론인 (4.2%)의 순서다.

이같은 결과는 한국 사회에서의 근로자의 중요성이 국민들 자신의 의식속에서 크게 자리잡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 준다. 근로자들의 그만한 중요도에 비해 〈이익분배과정〉에서는 〈가장 소외된 계층〉이 근로자(50.5%)와 농어민 (25.6%)으로 나타났다.

국민소득 1천달러가 넘은 경제혜택을 어느 정도 받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65.2%가 부정적인, 23%가 긍정적인 견해를 밝혔으며, 자신의 〈노동이나 노력에 대한 댓가(임금)는 정당치 못하다〉는 의견을 51.2%가 표명했다.」 (79. 3. 4일자 조선일보)

한편 한국 천주교 정의평화 위원회도 기미 3·1운동 60주년을 기념하는 〈민족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기도 모임〉에서 발표한 선언문에서 "바로 최근까지 전체 근로자의 76.7%가 납세수준에 미달하는 저임금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3월 10일은 근로자의 날이다. 또한 3월은 노동자의 주보(主保)이신 요셉 성인을 기리고 본받아 배우는 요셉 성월이다. 국가 발전에 큰 몫을 하는데도 이익분배과정에서 소외된 형제들이 근로자들이라는 시대의 징표에 어떻게 응답해야 할 것인가?

가톨릭 노동운동에 관심을 갖차. 박수를 보내자.

숲 정 이 산 책

형제 문신부 수난

□사제 양성 후원을 위한
사순절 성금 운동을 시작하며③

은퇴 신부님을 뵈옵고

김 준 호 신부

발걸을 더듬으시며 대문까지 마중 나오시는 신부님, 주위를 감싸도는 바람끝이 유달리 싸늘하다.

힘주어 감싸 주시는, 그러나 이젠 메말라 거칠기만한 신 손등에 퍼런 힘줄이 애처롭게 돋보인다.

허연 머리ㅡ 골골이 깊어진 주름살 깊이 속에 한 생을 외곬로, 그저 주님의 구원사업을 위해 아무것도 바랄 것 없이, 그것도 생의 욕심이 가장 커다랄 젊은 청춘을 말이다.

ㅡ사제란 서품식 그 하나 때문만으로도 모든 인간적인 소망과 개인 의사로써 파괴될 수 없는 새로운 질서 속에 서게 된다ㅡ 독일의 어느 여류 작가의 말이었던가? 그러나 수천명 가운데 하느님이 당신의 특별한 일을 위해서 택했던 사람을 하느님은 절대로 버리시지 않으시리라. 그것이 바로 희생자(?)의 댓가일런지 모른다.

"신부님, 세상인간이라고는 아무도 돌아보지도 않는 지금조차도, 당신의 한 생에 작은 서글픔이라도 없나요?"

"글쎄, 주님을 위한 일이었다면, 하ㅡ 그것 조차도 은총이어라"

가진 바도 없읍니다.
드릴 바도 없읍니다.
다만 가질 바 모두를 당신께 드리고져….

꽃다운 젊은 시절ㅡ신부가 되던 바로 그 서품식 날, 제단 앞에 엎디어 눈물이라도 뚝뚝 흘리시면서 속으로만 맘 가지셨을 어느 시인의 한 구절 시(詩)처럼….

사제는 그리스도가 맡긴 사명에 참여안하는 지체가 없다더니 한 끝 그 말씀에도 고개가 숙여진다. 그러나 이제는 그 허연 백발에 그 누구의 눈길도 없음이 안타까울 뿐, 어느 땐 그저 젊다는게 이렇듯 부끄러움일줄이야.

지금, 사순절ㅡ이때는 특별히 이웃과 사랑의 나눔을 실천해야 한다고 교회는 외치고 있다.

사랑의 나눔ㅡ좋은 것. 그러나 모든 것은 인간에 대한 진정한 관심에서부터 출발되어야 하리라. 그리스도께서도 그 인간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선한 사람들의 내적 충동을 이웃사랑이라 하셨고, 그 이웃 사랑을 하느님의 사랑과 동일시 하셨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싶다.

동전 몇 잎이 짤랑 거리는 내 하얀 토끼 저금통을 만지면서 말이다.

〈전주교구 교육 홍보국장〉

한국 천주교 정의 평화 위원회가 주관한

3·1절 기념 미사

기미년 3월 1일.

3·1절의 회갑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한국 천주교 정의 평화 위원회는 서울 명동 대성당에서 기념미사를 봉헌하였다.

김 수환 추기경께서 주례한 이 미사는 전국 정의 평화 위원회의 총재이신 윤 공희 대주교님과 인천 교구장이신 나 길모 주교님께서 공동 집전하는 가운데 80여명의 사제들과 많은 수도자들 그리고 대성당을 가득 메운 신자들의 뜨거운 염원 속에 조국의 통일과 민주를 위해 봉헌되었다.

김 추기경께서는 강론을 통해 60년 전 거국적으로 표명되었던 3·1정신이 인생으로 치자면 완성을 이루는 오늘 어떻게 결실을 맺고 있는지 진지하게 거론되고 반성되어야 한다고 전제하시고, 3·1정신의 알맹이라 할 수 있는 민주·민생·자유·공영·도의등의 가치들이 오늘날 얼마나 신장되어 있는지를 여러 측면에서 검토하셨다

정의와 진리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감시를 당하거나 심하면 감옥에 들어가 있어야 하는 현실이 아닌가? 앞에서 말한 3·1정신의 제가치를 위해 일하는 것만으로도 국사범처럼 취급되어야 한다는 것은 위정자들을 위해서나 국민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조국의 통일을 위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종합되어야할 현실인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의견들과 능력들ㅡ국민의 힘이 쓸데없이 엉뚱한 방향으로 소모되고 있는 형편이 아닌가?

한 마디로 국민의 민주와 정의 그리고 진리에 대한 확고한 가치 정립이 이루어지지 않은 오늘, 국민이 이 나라를 내 나라로 뜨겁게 사랑하고 이를 위해 목숨까지 바칠 각오가 되어있지 않은 것이다. 그와같은 정신이 3·1정신일진대 오늘 우리의 현실에서 3·1정신의 계승 내지는 진전을 찾아보기 힘들다. 부패할 수 있는 자유는 한없이 보장되는 것 같은데 진리와 정의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자유는 자꾸 억압 되어가고 있음을 생각할 때 오늘의 조국과 민족의 장래를 어찌 걱정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인가?

오늘의 조국을 염려하며 조국의 통일과 자주독립을 위해 우리를 주님께 봉헌한 미사를 마친 뒤 한국 천주교 정의 평화 위원회가 발표한 두 개의 성명서가 낭독되었다. 하나는 지난 27사면조치에 대한 성명서(1979. 1. 7 일자)이고 다른 하나는 3·1절 정평위 선언(1979. 3. 1 일자)이다.

하루 빨리 조국의 민주화와 통일이 이루어짐으로써 세계의 평화와 공영에 이바지하는 영광된 국민이 되기를 바랄 뿐이다.

□설계·감리 허가수속□ 하느님의 성전과 교형자매들의
보금자리 건축상담 환영!!!
신원건축연구소
1급 건축사
김 철 수 (금구〈언〉)
☆전주 가톨릭센타 220호실
전화3—7780, 3—〈야간〉1449

빛과 소금이 되시오! (교리교사출신 우대)
4·5급 공무원(주·야간)
〈행정·검찰·세무·경찰·3사 은행반〉
이리역전 신탁은행 3·4층(☎ 5943·8629)
이리 경 문 학 원
원장 한 정 상

□ 사순절 묵상②

사랑으로 가진 바를 나누자

사순절의 마지막 의미는 사랑의 실천입니다. 옛부터 사순절은 애긍시사의 기간이었읍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사랑입니다. 하느님 사랑, 이웃사랑,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째가는 계명입니다. 이 사랑 속에서 우리의 신앙은 꽃피워나고 열매를 맺읍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는 열심한 신자는 주일 미사에 빠지지 않고 고백성사, 영성체하면 모든 것을 다 잘하는 신자라는 관념이 있읍니다. 그러나 가장 완전한 신앙 생활은 이 사랑의 실천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옆집에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나 혼자 미사 영성체하였으니 나는 천당갈 것이다 라는 신자가 있다면 이는 크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마태오 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을 읽어 보면 잘 나타나 있읍니다. 최후의 심판에 우리가 하느님으로부터 받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내가 굶주렸을 때, 목말랐을 때, 집없이 떠돌아 다녔을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는 내게 무엇을 해주었느냐?" "언제 주님이 그러셨읍니까?" 우리가 주님께 물을 때 주님은 이렇게 답하실 것입니다.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여기 있는 형제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형제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라고!

아마도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헐벗고 굶주리고 병들고 집없는 사람으로 오신다면 여러분은 다투어서 나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웃에 이런 모습의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은 후엇을 하실 것입니까? 이 분들이 바로 주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이분들에게 하지 않는 것은 바로 주님께 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를 분명히 하고 있읍니다. 사랑은 입으로 하거나 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동안 해마다 해오던 것처럼 한국 교회 전체가 사순절 운동을 전개합니다. 그 주제는 "사랑으로 가진 바를 나누자"입니다. 또한 올해는 "세계 어린이의 해"입니다. 특별히 고통 받고 있는 아동들을 위하여 여러분의 사랑 실천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내 자식만이 귀한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의 모상을 닮은 모든 아이들이 사실 다 내 자식입니다. 그 중에서도 고통받고 있는 죄없는 어린이들은 더욱 우리의 사랑을 필요로 합니다.

한국 교회 전체가 4월1일 사순 제5주일에 고통받는 어린이들을 위한 헌금을 합니다. 바오로 사도의 권고대로 "형편대로 얼마씩을 미리 저축하여"(I 고린토 16:2)이날 교회에 헌납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십시요. 여러분의 이 성의가 전국적으로 모여 불우한 어린이들을 위하여 쓰여질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의 귀여운 자녀들아 이 고통받는 친구들을 위하여 이 친구들을 도울 수 있도록 신경을 쓰십시요. 어려서부터 신앙 교육을 받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주교회의 인성회(仁成會)전국 사무국 제공

요십이 (293) 김병오

교우들의 전당
(견습생 구함, 16세~18세 미만)
스타 사진관
전주시 고사동(동아여관) 앞
전화 ② 6094

◆경운기·분무기·전자동 탈곡기
트랙타·각종 농기구일절 도산매
대동공업(주)전북총판
대표 오 승 엽(바오로)
이리시 평화동 20번지
☎ 9000, 9001, 9002, 9003번

☆ 교우들의 건강상담
이 화 약 국
대표: 김 치 덕(바오로)
약사: 황 명 순(아네스)
김제 전화: 2006·2666·36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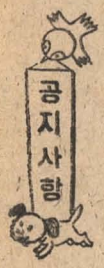
표구, 서화, 병풍, 수예, 방석, 보료
문 화 양 행
오 중 원(아오스딩)
팔달로 주택은행 맞은편 ②3170
☆교우님들 자주 들리세요

직 원 채 용(급모)
1. 자격: ① 병역을 필한자나 면제된자
② 주산 부기 3급 이상
③ 이리시에 거주하는 참신한자
2. 제출서류: ①이력서. ②반명함판1매
③주민등록등본 ④병력관계증명서
⑤자격증사본
3. 마 감: 1979년 3월 22일
4. 전형일자: 1979년 3월 26일
5. 제 출 처: 이리 주현 신용협동조합
(본당 사무실)T. 3993
주현동 천주교회 신용협동조합

아크릴·아취·실내장치·각종간판
페인트·집칠·카메라 대여 DP&E
전 주 광 고 사
대표 이 기 배(요비노)
□ 전주시 다가동 1가 18
☎ ② 1585
⊙ 감초당 약국 앞

주단·포목 혼수 이불감 도산매
유 진 상 회
구시장 보화당 앞
이리시 인화동 1가 84
장 완 태(바오로)
전화: 5821

제 4 지구 각 본당 소식



1. 사순절 특별 강연회(2)…14일〈수〉 오후 8시, 중앙성당(※ 7시 30분부터 미사)
   ① 주제…크리스챤의 내적 쇄신과 일치, ② 강사…김영환 신부(광주 대전 신학대학 교수)
   ※ 셋째, 넷째특강은 사정에 의해 전동성당으로 장소를 바꿔 실시함
2. 프란치스꼬 재속 형제회 전북지부 월례회…17일〈토〉 오후 2시, 노송성당 사제관
   ※ 각 형제회 간부들은 2월분 보고서 지참하고 참석하시기 바람
3. 전주교구 중고등학생 연합회 임원 개편(지도신부 김동준)
   회장…유동근(서학동), 부회장…이명숙(서학동)
   총무부…조창현(노송동)·오묘숙(중앙), 성화부…소기태(중앙)·임미희(중앙),
   조사연구부…강석인(중앙)·허남숙(중앙), 섭외부…안명식(전동)·김영숙(숲정이),
   체육부…박종렬(덕진)·김미란(복자)
   —열심히 일하겠습니다…임원들 드림

□ 숲정이 편집실 전화놓기 성금, 감사합니다…중앙 김정생 5,000원, 제2차 공소지도자 연수회 참가자12,525원

(중앙)

전화 ③3651 3874
주임 신부 서 용 복
보좌 신부 정 태 현
사도 회장 이 북 석

1. 꾸리아 : 11일〈일〉 오후 2시
2. 환자 영성체 : 13일〈화〉 오후 2시
3. 성모 유치원 개학식 : 14일〈수〉 오전 10시
4. 미사후 서로 인사를 나눕시다
5. 부모님들은 주일학교에 관심을…
   (토요일, 오후 3시)
6. 제대초 106개 봉헌
   고 김세시리아 자부 이복례 감사합니다

□ 지난주 봉헌금 : 223,255원

(노송동)

전화 ③ 7032
주임 신부 김 정 원
보좌 신부 박 종 신
사도 회장 김 성 록

1. 성모회 월례회 : 오늘 공식 미사후
2. 신우회 월례회 : 오늘 저녁 미사후
3. 본당 성령 세미나 개최
   15일부터(목·금·토) 2주간 매일 저녁 8시~10시
   ※ 사도회 임원 각 단체회장 기타 관심있는분 꼭 참석 하세요
4. 본당 신부님 가정방문 : 금주—남노송동·인후동
   구역장님 반장님 대기하세요
5. 금년도 교무금 신입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난주 봉헌금 : 103,831원

(덕진)

전화 ③2182
주임 신부 서 석 기
보좌 신부 전 종 복
사도 회장 유 제 상

1. 젊은이를 위한 사순절 묵상회 : 3월 17일 오후 2시
   18일 오전 9시까지, 문의 : 보좌신부님
   참가비 : 1,000원·쌀 1되
2. 부활 축일 성가연습 : 토요일 오전 11시 다음주부터
3. 교적이 다른 본당에 있으신분 사무실에 연락하세요
4. 중·고 신입생 환영식
   오늘 공식 미사후(2층 회의실)
5. 불우이웃돕기 폐품수집 : 많은 협조가 아쉽습니다
6. 제대초 기증 : 장윤옥(데레사) 할머니
   쾌유를 위하여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7. 가정방문 : 금암동—보좌신부님, 덕진동—본당신부님

□ 지난주 봉헌금 : 40,565원 교무금 : 179,995원

(복자)

전화 ②5238
주임 신부 김 종 택
보좌 신부 박 성 팔
사도 회장 조 성 호

1. 성우회 월례회 : 오늘 공식 미사후(유덕열 형제댁)
2. 본당신부님 영명축일 : 3월 19일(성요셉 축일)
   많은 기도와 협조 바랍니다
3. 가정방문
   12일—태 4반(송 누시아), 13일—태 3반(최 젬마)
   14일—태 1·2반(최데레사·허데레사),
   15일—태 5반(신 방지거), 16일—태 6반(이 글라라)
   17일—태 7반(임 글라라)
4. 학생미사 : 매주 오전 9시
   주일학교—매주 오후 3시, 4시 미사

□ 지난주 봉헌금 : 209,100원

(서학동)

전화 ②2276
주임 신부 오 현 택
사도 회장 황 인 구

1. 선교주일 : L.M 간부회
2. 자체교육 : 10시 미사
3. 예비자 교리 : 10시 미사후
4. 사도회 : 10시 미사후
5. 학생회 월례회 및 신입생 환영회 : 10시 미사후
6. 감사합니다 : 신부님 영명축하
7. 반상회 및 가정방문 : 13일—5반
   14일—6반(반상회 없음) 15일—7반, 16일—8반
8. 성령 세미나 및 기도회 : 14일 저녁 7시 30분

□ 지난주 봉헌금 : 55,450원

(숲정이)

전화 ③7366
주임 신부 이 대 권
사도 회장 이 강 노

1. 유치원 입학식 : 3월 10일 10시
2. 봉헌(교무)금 밀리지 않도록 노력합시다
3. 학생회 단합 체육대회 : 3월 18일 오후 1시—6시
   중·고 학생 전원, 여러분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4. 첫 영성체 교리 빠짐없이 보내주세요
5. 예비자 교리 : 화·수·주일 공식 미사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6. 봄 판공성사 : 3월 20일 예정
7. 십자가의 길 : 매주〈금〉 성령 기도회전 7시

□ 지난주 봉헌금 : 171,060원

(전동)

전화 ②3222
주임 신부 김 병 엽
보좌 신부 김 기 수
사도 회장 유 석 종

※ 사순 제2주 : 봉사의 실천주간
1. 자모회 : 10시 미사후
2. 장우회 : 저녁 미사후
3. 성화회 : 10시 미사후
4. 성가정회 : 월요일 오후 2시
5. 예비자 교리 : 일반—주일 10시 미사후
   젊은이 : 수·목 저녁 미사후
6. 젊은이 성가대 :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목·금) 저녁 미사후
7. 중·고생 교리 : 주일 9시 미사후
8. 가정방문 : 전동, 중앙동, 다가동, 경원동

☆ 지난주 불우이웃돕기 희생 헌금 : 46,170원

□ 지난주 봉헌금 : 181,130원

(파티마)

전화 ②0915
주임신부 문 정 현
사도회장 채 수 현

☆ 각 가정의 토끼는 살찌고 있읍니까?
1. 마지막 성령 세미나 : 13일〈화〉 저녁 7시
2. 십자가의 길 : 매주〈금〉 미사후, 주일 미사후
3. 바오로회 : 공식 미사후
4. 운동장 미화 작업 : 공식 미사후
5. 중·고 신입생 환영미사 : 오후 4시
6. 구역미사 : 서완산 4구역
7. 유치원 개원 축하미사 : 15일 오전 10시
   신자들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 지난주 봉헌금 : 70,535원

* 인쇄 : 전 주 보 광 출 판 사 ☎ ③ 3 2 7 2